

반잠수선 선미 접안... 오늘 육상 이송 시도

세월호의 육상 거치가 빠르면 6일, 늦어도 10일까지 완료된다. 특수이동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Module transporter·MT)가 세월호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5일 “오늘 10일까지를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가능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수습본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두가지로, 서로 연계돼 있다. 먼저 그동안 추진했던 소형 MT로 세월호를 이송하는 것이고, 다른 안은 소형 MT 대신 중형 MT로 교체하는 방안이다. 현장수습본부는 이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이날 저녁 소형 MT의 하중부하를 시험하기로 했다. 이미 조립된 소형 MT 480대를 반잠수식 선박의 갑판으로 진입시켜 세월호 선체를 시험적으로 들어올려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다. 테스트 결과, 소형 MT로 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6일 본격적인 세월호 육상 이동을 시도한다.

그렇지 않으면 ‘플랜B’를 가동, 중형 MT로 대체 투입해 이송하는 방안이다. 중형 MT 336대를 새로 들여오고 조립 시간 등을 고려해 1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준비된 소형 MT는 대당 최대 적재용량이 40톤이다. 총 480대가 조립돼 1만3600톤의 중량을 이송시킬 수 있다. 중형 MT는 최대 적재용량이 60톤

모듈 트랜스포터 480대 진입... 세월호 하중 테스트 후 결정 안되면 중형 336대 새로 투입... 늦어도 10일까지 거치 완료 해수부 작업 가능 시기 등 잇단 말바꾸기에 유족 거센 반발

■ 세월호 육상 거치 준비 작업

5일 모듈 트랜스포터(MT) 480대 조립 및 반잠수선 새로 정비함으로 접안 작업 / 6일 오전 MT 진입 테스트 후 이송 시도 / 성공 시 / 7일 까지 육상 거치 완료 / 실패 시 / 10일 까지 60톤까지 적재 가능한 MT 336대 동원해 육상 거치 완료 (소조기: 4월4일~8일)



이며 336대를 조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4일 인양업체인 상하이셀비지가 세월호 선체 무게를 기존 추정치(1만3462톤)보다 1130톤이 더 무거운 1만 4592톤으로 추정하면서 소형 MT 시스템으로는 세월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에 대해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선체 무게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 실제 무게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만큼 이송 시도는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하다가 안되면 중형 MT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넉넉한 용량으로 장비 운영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난해 목포신항과 가까운 영암 대불산단에서 1만 5000톤급 구조물을 이송한 사례를 언급하며 목포 인근 대용량 장비를 두고 경남 등지에서 장비를 동원한 이유를 추궁하는 질문도 나왔다.

작업 가능 시기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다.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가 작은 소조기가 아니면 작업이 어렵다며 7일을 육상 거치 완료일로 잡았다가, 소조기가 끝나지만 10일까지 작업이 가능하다고 시기를 연장했다.

이처럼 육상 거치 준비 과정에서 기초 자료 오류, 저용량 이송방식, 작업시기 말바꾸기 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현장수습본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부두와 나란히 접안돼 있던 반잠수식 선박을 90도 방향을 틀어 세월호 선미 쪽이 부두에 닿게 세로로 다시 접안했다. 또 MT 480대를 8대씩 6줄로 이어붙여 작동해보는 시운전도 실시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사고해역의 수중 수색은 파고가 높아 중단됐다. 기상 상황이 호전되면 수중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 /목포=박정욱기자 jwpark@

미수습자 수색 윤곽...3단계 나눠 진행

선수·선미 등 6개조 투입기로 선체조사위 “가족과 합의했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작업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김창준 세월호선체조사위원장은 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미수습자 수색을 3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미수습자 가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수습자의 빠른 수습을 위해 1단계로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특정해 정밀 수색한다. 추정 장소는 수중영상 촬영자료 분석, 미수습자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세월호 CCTV 영상 분석, 생존자 진술, 가족 증

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이 접근하지 못한 객실 등이다. 선체조사위는 여기에 가족들이 원하는 곳을 추가해 1단계 수색 장소를 확정할 방침이다.

2단계는 객실 부분으로 3·4층을 정밀 수색하고, 3단계는 화물 창고를 비롯해 세월호 전반을 정밀 수색한다는 방침이다.

미수습자 수색은 6개조가 투입된다. 먼저 선수와 선미 쪽으로 각각 2개조씩 4개조를 투입하고, 중앙은 워킹타워를 설치해 안전을 확보한 뒤 2개조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육상 거치와 상관없이 통로 확보 작업은 계속하기로 했다.

/목포=전은재기자 ej6621@

단원고 학생 가방 등 유류품 101점 수습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의 여행 가방이 발견됐다. 수습된 유류품은 101점으로 늘었다.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5일 브리핑에서 “세월호가 거치된 반잠수식 선박 갑판에 떨어진 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학생용 여행가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가방 주인은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재학생이었던 김모(18)양이다. 김양은 사고 발생 1주 후에 시신이 수습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방 속에서는 김 양의 교복 등 옷가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가방 안에서 명찰이 나

와 주인이 확인됐고 유가족협의회와 가방 처리 방안을 협의했다”며 “세척 등 정리를 거쳐 유가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본부장은 또 “유류품은 세척·건조 등 정리작업을 마친 후 해당 지자체에 전달하면 지자체에서 주인을 찾아 돌려준다”고 덧붙였다.

여행 가방 외에도 남성용 구두와 슬리퍼, 등산화 등 신발 12점, 패딩점퍼와 내의 등 의류 2점 등 추가로 32점의 유류품이 수습됐다. 세월호 인양 이후 수습된 유류품은 모두 101점, 껌조각은 20점이 다.

/목포=전은재기자 ej6621@

버스에 놓고 내린 360만원 돈가방 ‘꿀꺽’...60대 입건

광주북부경찰청은 5일 60대 할머니가 버스에 놓고 내린 현금 360만 원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69)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5분께 광주 시내의 한 버스에서 김모(여·68)씨가 놓고 내린 가방 안 현금 360만 원을 발견하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설거지·청소 등 허

드렛일을 하며 전 재산 360만 원을 모아 매일 들고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우연히 버스 의자 아래에서 김씨의 현금 가방을 주워 이를 이차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박씨가 김씨에게 150만 원을 우선 갖고, 나머지 금액은 보상할 예정임에 따라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변기 막혔다” 종업원 가게 밖 유인 후 금품 ‘슬쩍’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며 피시방 종업원을 가게 밖으로 유인한 뒤 아무도 없는 카운터에서 금품을 훔쳐간 20대 경찰에 검거.

○5일 광주동부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구치소에 수감 중인 황모(29)씨는 지난 달 15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황금동 박모(37)씨가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다 종업원이 화장실을 점검하러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에 보관중인 현금 15만원을 꺼내간 혐의.

○경찰은 범행현장의 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확보해 동일수법의 전과자 100여명을 조사한 결과, 황씨가 피시방을 무대로 목표와 대구 등지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전과 8범으로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접견을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절도 혐의에 입건.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세월호가 모듈 트랜스포터를 이용한 육상거치를 위해 5일 오후 목포 신항만에서 방향을 바꿔 재접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내에 있는 섬 (팻섬)
- 향우 개발가치 100억
- 분할 / 지분매매 가능
- 매매 - 7억 (평당5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H.010-3605-5000

광양, **싼**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 중동 라희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 주인직매

H.010-3605-5000

나주, 남평읍 토지

-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계획관리지역
-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 평당 60 ~ 100 만원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25억 (평당 40만원)
- 장기투자 최고물건
- 주인직매

H.010-3605-5000